**KoFID-부산시민연대**

**공동 워크샵**

**1. 행사 개요**

* 일시 : 2011.10. 14(금) 오후 14:30-17:00
* 장소 : 아르피나 지하1층 “마루”
* 주최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부산시민연대
* 참가자:
* 코피드 참여단체
* 부산시민사회연대 참여단체
* 그 외 관심 있는 단체

**2. 배경과 목적**

* 지난 7월 초 OECD WP-EFF(원조효과성 작업반) 회의를 계기로 부산총회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협상 시작
* 국제시민사회를 대변하는Open Forum과 BetterAid 또한 부산총회 관련 기본 입장과 준비문서 – International Framework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와 Key Asks – 준비 완료, 본격적인 로비와 캠페인 활동에 착수
* 부산회의의 내용과 결과는 현재 한국정부의 포지션 페이퍼를 중심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으며 한국정부가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한국시민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이러한 상황에서 KoFID는 지난 7월 내부 워크샵을 계기로 부산총회 관련 국내 시민사회의 준비상황을 점검, 주요 의제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수렴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포지션 페이퍼 작성
* 본 워크샵에서KoFID 포지션 페이퍼를 토대로 부산총회 관련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 전망과 전략 및 행동계획을 논의하고자 함

**3. 주요 의제**

* 부산총회 주요 의제에 대한 국제시민사회의 대응 동향과 입장
* 부산총회 주요 의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한 평가 및 대응
* 부산총회 주요 의제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입장
* 부산총회 관련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 전망과 전략 및 행동계획 논의

**4. 프로그램**

|  |
| --- |
| **2011년 10월 14일 (금)**  |
| 1400-1430 | 도착 및 등록  |
| 1430-1450  | **축사**부산시민연대 김길구 대표 **사회**송진호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실장 /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 1450-1630 | **[발제1]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준비 현황 및 주요 쟁점**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 국제개발협력센터장**[발제2] 한국 시민사회의 국내외 연대 전망과 전략**양영미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토론 1. 박성주 부산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토론 2. 차진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토론 3. 최동섭 부산YMCA 시민사업국장  |
| 1630-1700 | 종합 토론 및 마무리  |

* 발제1.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준비 현황 및 주요 쟁점

–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 국제개발협력센터장

* 왜 개발원조에 시민사회가 관심을 갖는가?

한국의 원조 총액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중 시민단체를 통한 지원은 400억 정도로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액은 100억(전체 액수는 1400억), 선진화 법안에 따르면2015년까지 900억까지 증가시키로 계획 됨. 개발 NGO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번 부산총회를 통해, 부산에서 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국제적인 전문가들의 회의로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활동을 할 것인지,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활동을 규정하는 이 회의의 중요성이 있음을 인지할 기회가 될 것이다.

* HLF의 역사

2001년 고위급회담은 원조피로금에서 기인되었고, 그후 새천년개발목표를 정하고 달성을 위한 자금 마련을 기획하던 중 국내 자금 동원, 무역, 원조, 기업투자, 외채탕감의 5 가지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1차 고위급회담에서 공여국이 자국의 이기심이 원조의 계기임을 문제로 인식하고 조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이 후 2005년 파리선언으로 정리가 되었다.

2012년 파리선언 만료, 부산총회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시민사회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언급될 부산총회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아크라회의 이후 시민단체를 독립적인 개발 주체라고 인정하여 이전의 보조적이고 부수적인 존재라는 인식에서 전환됨, 시민단체의 원조규모도 이러한 전환에 기여, 대신 정부 또한 시민단체의 개발효과성을 요구함. open forum을 만들어 시민사회의 효과성을 논의하기 시작하고 동시에 가능하게하는 환경을 요구 하기 시작함.

* 한국 정부는 이스탄불 선언을 승인하고 시엠립을 인정한다고 공식 발표.

고위급회담이 끝남 부산총회에서 이후 어떤 구조로 원조 논의가 진행될 것인지를 정해야 함.

* 파리선언 5개원칙과 12개 지표 2008년 평가, 2010년 평가

: 수원국 역량강화 달성- 연수사업 잘됨, 나머지 지표는 달성 못함

* 파리원칙을 더욱 심화해야 하는지 혹은 다른 담론으로 옮겨가야 하는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짐, 더이상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함
* 부산총회는 논의의 8개의 블럭을 만듬: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가능하게 하는 환경과 농업을 중시
* **결과문서 초안의 쟁점**
* 원조효과성 / 개발효과성

개발효과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고 있지 않다. 개발은행이나 DAC은 경제적 성장이 동반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성임. 한국 정부는 G20 의제, 남남협력, 새로운 파트너, 기업, 젠더를 고려한 개발을 개발효과성으로 봄, 시민사회의 주장이 반영됨 즉 원조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지표는 없었음 따라서 개발효과성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포함된 개발이 효과성이라고 주장 함. 개발효과성에 대한 용어로의 전환은 성공했으나 그 내용은 이전의 원조효과성 논의와 다름없음

* 사적원조

수원국 오너십 강조 – 공여국의 책임을 모두 수원국으로 넘기는 전략임. 남남협력을 강조하면서 부산총회는 각자의 책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됨

* 발제 2. 한국 시민사회의 국내외 연대 전망과 전략

- 양영미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90년대 이후 국제연대 본격화, 87년 6월 민주화 항쟁이후에는 군부독재 타도로 시민사회가 통일되어 있었으며, 국내 연대 위주로 활동하였다. 하지만, 이후에 시작된 국제연대와 국내연대의 아젠다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시민사회는 국제연대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되며, 한국이 여전히 도움을 주기 보다는 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있고 개도국에 나가서 일방적인 도움을 주는 것 외에 배울 것이 있다는 생각은 없어 보인다.

* 다른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사회가 관심 부족: 버마의 인권 문제, 쓰나미 문제 등에 관심이 없어 보임
* 노동문제가 가장 국제연대에 앞장섬, 남반구 노동운동과 연계됨
* 인권문제도 국제연대 활발, 동티모르 지원으로 시작됨.
* 여성문제는 인신매매 성매매에 적극적으로 개입 중 정신대 문제를 국제 이슈화하여 성노동착취 문제 제기
* 평화운동- 다른 국가의 전쟁에 개입하는 경우는 없었으나 9.11 이후 전세계적인 평화운동이 생김, 한국 정부가 이라크에 파병하면서 우리나라가 잘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 반전운동을 통해 국제연대 활발
* 9.11이후 전세계는 인권 노동 등 모든 이슈들이 모두 안보 문제로 돌아가버렸다. 빈곤퇴치의 성과가 떨어지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자원이 안보로 감
* 테러가 왜 일어나는 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성찰 없이 결과를 억제하는 것에 초점
* 원전이나 환경훼손 등의 수여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부산시의 원조사업에는 부산 시민단체, 특히 환경단체가 관심을 가져야 함
* 토론1. 박성주 부산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원조에 있어 인간이 가장 중심이어야 한다.

거대 자본에 의해 움직이는 세계는 자본의 소성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음

자본에 의한 신식민지화의 과정에 있음: 원조는 그 과정에서 약간의 제스처로 보임

* 인간 중심의 가치

- 세계는 운명 공동체화 되었음 다른 나라의 삶의 질이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영향을 받음.

* 정부와 국가의 이면에 있는 자본이 책무성을 갖도록 개발협력이 필요
* 원조나 구호라는 용어에 대한 재 정의 필요

원조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님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것

다른 나라의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 운명공동체로서 책임져야 함 수원국의 권리이기도 함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원조여야 함.

* 토론2. 차진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부산 지역사회는 개발협력 활동이 거의 없음
* 시민사회의 인식도 여유가 있으면 개도국 지원사업을 하고 어려움은 접는 수준
* 왜 우리도 어려운데 타국을 도와야 하는가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
* 기업 중심의 성장지상주의적 원조가 한국정부의 정책에 보임
* 지속가능하고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고 빈곤을 퇴치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이도록 시민단체가 역할 해야 함
* 지역 특히 부산도 이제 개발협력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행동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토론3. 최동섭 부산YMCA 시민사업국장
* 전반적으로 다른 분야와 다른 단체와의 연대부족을 많이 느꼈음
* YMCA는 기독교 단체로서 선교를 통한 개도국으로의 확장이 왜곡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 고 이태석 신부 기념사업회가 부산에서 발족 이를 계기로 부산에서 개발협력의 논의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듬
*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 전무함 인권적으로 모든 면에서 가장 탄압받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눈치를 보며 한국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전무함. 미국의 원조예산의 20퍼센트가 이스라엘로 가고 있음

->시민단체간의 소통